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며

범피적인 동족대결책동으로 날이 갈수록 수세에 몰리게 되자 남조선당국자는 1978년 6월 23일 이른바 《남북경제협력의기구조성》에 대한 제의를 내놓았다. 그 골자는 《남북간의 교역, 기술협력, 자본협력의 길을 열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쌍방의 민간 경제대표들이 참여하는 (남북경제협력추진을 위한 협의 기구의 구성)을 제의》한 것인데 이것은 철두철미 분열을 노린 《두개 조선》조작책동의 산물이었다.

30년기 중양경제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보고에서 공화국정부는 조국통일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대화의 문도 열어놓고있고 남조선의 당국자들, 각 정당들과의 대화의 문도 열어놓고있다고 하시면서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립장으로 출발하지 않고 대화의 막뒤에서 딴 목적을 추구하거나 대화를 《두개 조선》조작을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려 한다면 대화는 이루어질수 없으며 그러한 대화는 아무런 의의도 없으나, 분열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통일을 위한 대화를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조선당국자들이 《승풍》을 부르짖으면서 공산주의자들과 《경제협력》을 하였다는것은 리치에 맞지 않는것이며 그것은 분열주의자의 정체를 가리워보려는 서툰 위장술에 지나지 않는다는것,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와 진심으로 대화를 하고 합작을 하려고 한다면 민족분열정책을 통일정책으로 바꾸고 반공정책을 련공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것은 분열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통일을 위한 대화를 통해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자는것이며 북남 대화를 당국자들뿐만이 아니라 각 정당들과의 폭넓은 대화로 전환시키자는것이였다.

이로부터 1979년 1월 23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북과 남이 7.4공동성명의 본래의 리념과 원칙으로 되돌아갈데 대한 문제, 상대방에 대한 비방증상을 즉시 중지할데 대한 문제,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위협하는 모든 군사행동을 무조건 즉시 중지할데 대한 문제,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문제를 내용으로 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제안에 대하여 내외에서 커다란 반향이 일어나자 남조선당국자들은 1월 26일 이에 형식적으로나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수 없었다. 공화국정부는 1월 31일 조선중앙통신사 성명을 통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1월 23일 성명에 지적된대로 지난날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7.4공동성명의 리념과 원칙을 성실히 리행할것을 재확인하고 2월 1일 오전 10시를 기하여 상대방을 비방증상하는 모든 선전과 행사를 일방적으로 중지할데 대한 중동적조치를 취할것을 내외에 천명하였으며 남조선측에서도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1979년 1월 23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북과 남이 7.4공동성명의 본래의 리념과 원칙으로 되돌아갈데 대한 문제, 상대방에 대한 비방증상을 즉시 중지할데 대한 문제,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위협하는 모든 군사행동을 무조건 즉시 중지할데 대한 문제,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문제를 내용으로 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제안에 대하여 내외에서 커다란 반향이 일어나자 남조선당국자들은 1월 26일 이에 형식적으로나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수 없었다. 공화국정부는 1월 31일 조선중앙통신사 성명을 통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1월 23일 성명에 지적된대로 지난날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7.4공동성명의 리념과 원칙을 성실히 리행할것을 재확인하고 2월 1일 오전 10시를 기하여 상대방을 비방증상하는 모든 선전과 행사를 일방적으로 중지할데 대한 중동적조치를 취할것을 내외에 천명하였으며 남조선측에서도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민족재생의 유일한 길

은 민족의 커다란 관심속에 역사적인 남북회담이 성과적으로 끝나고 남조선에서는 온 일부 인사들이 평양을 떠나기 시작하던 주제37(1948)년 5월 어느날이었다. 이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몸소 흥명회선생의 숙소를 찾으시고 나라의 통일문제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통일전선탑



통일전선탑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지나신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과 민족대단결리념, 통일전선운동사의 위대한 경륜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탑이다. 주제79(1990)년 8월 10일 축성에 세워졌다.

탑은 탑신과 그 밑의 비문판으로 되어 있으며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였던 북과 남의 56개 정당, 사회단체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되었다는 것을 상징하여 56개의 화강석을 다듬어 세웠다. 탑의 높이는 13.5m이며 질량은 550t이다.

탑의 앞면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로 된 《통일전선탑》이라는 글자가 부각되어있다. 옷부분에는 축성협회의가 있는 지 42돛이 되는 해에 탑을 세웠다는 의미에서 42층의 목란꽃을 새겼다. 탑신의 뒤면에는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였던 56개의 정당, 사회단체들의 이름을 새겨넣었다.

탑의 앞면 비문판에는 4월남북련석회의가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모서져있다. 뒤면 비문판에는 축성협회의에 참가하였던 대표들의 이름이 새겨져있다.

통일을 불러

민족어 연구와 더불어 빛나는 삶 (1)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생을 빛내인 통일애국인사들 가운데는 《고투》라는 별호를 가졌던 리국로선생도 있다. 리국로선생은 1893년 8월 기술어저가 조선봉건왕조의 말기에 경성남도 의령군의 막내로 태어났다. 3살때 어머니를 잃은 선생은 모친 가난과 친대속에 유년시절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 산천도 사람도 결코 편안할수가 없다. 망한 나라의 지붕 밑에서는 사람은 설사 살아있어도 상갓집 개만도 못한 법이다. 학교에서 조선말을 했다고 쫓겨나고 벌을 서는 동갑때의 아이들을 보면서 그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 제 나라 말도 마음놓고 하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에 혼자서 울분을 터뜨리기도 하였다.

민족어 연구와 더불어 오래동안 조선독립의 길을 찾아 끝없이 방황해온 선생. 그때부터 그의 가슴속에는 김일성장군님의 대한 열렬한 호모와 동경심이 그들 먹이 차올랐다. 리국로선생은 돌아오면서 진정으로 애국을 하고 깃뚫힌 겨레를 구원하려면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만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결심을 굳게 다지게 되었다.

그로부터 몇달후에 학술단체로 유지되고있던 조선어 연구회를 애국적방향을 지닌 각계각층의 광범한 지성인들을 망라한 반일애국단체인 조선어학회로 개편한 선생은 조선어연구회의 종합체인 조선말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갔다. 193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 일제의 조선어말살책동은 더욱 격화되었다.

올바른 통일인식정립을 위해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최근 남조선의 청년세대속에서 나라의 분열을 몰아온 외세를 맹목적으로 우상화하는 경향이 농후해지고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진보단체들과 통일문제전문가들은 새것에 민감하고 세계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대한 리명박, 박근혜 《정권》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의식주입과 남조선사회에 만연된 《세계화》바람에 영향을 받고 자란데로 부터 벗어날 결과라고 평하고있다.

로막고 방해하는 외세에 기대를 거는것은 잘못된 현상이다. 오늘날 세계에서 유일하게 갈라져 사는 우리 민족의 가슴아픈 역사는 바로 외세에 의해 비롯된것이다. 그대 민족의 머리에 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오며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애국형정들을 강박하여 저들의 전쟁장비를 팔아먹고 남조선청년들을 세계제대전력실현을 위한 전쟁대표로 내모는 위세가 과연 남조선에 《안전》과 《번영》을 가져다줄수 있겠는가.

통일은 하나의 강도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가 외세에 의한 민족분열을 끝장내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민족중대사이다. 더구나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일떠세울 통일조국은 자주로 존엄높고 청년들이 자기의 희망과 요구를 마음껏 실현할수 있을 뿐없는 통일강국이다. 이는 남조선에서 공개적으로 울려나오는 목소리이기도 하다.

통일인식을 정립하고 침략적인 외세를 배격하기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벌여나가고있다. 본시기자 김영춘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 산천도 사람도 결코 편안할수가 없다. 망한 나라의 지붕 밑에서는 사람은 설사 살아있어도 상갓집 개만도 못한 법이다. 학교에서 조선말을 했다고 쫓겨나고 벌을 서는 동갑때의 아이들을 보면서 그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 제 나라 말도 마음놓고 하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에 혼자서 울분을 터뜨리기도 하였다.

193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 일제의 조선어말살책동은 더욱 격화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35년 6월에 조선말보급을 금지시켰으며 학교들에서 조선말을 하는 학생들에게 《불은분자》의 딱지를 붙여놓고 삼급학교에 갈수 없게 하거나 일차리도 얻을수 없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조선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과정에 일본말을 쓰도록 강박하였으며 려형에서는 일본말을 하지 않으면 차표도 팔아주지 않았고 상점에서 물건도 살수 없게 하였다. 지어 로인들이 《황국신민서사》를 일본말로 의무적으로 읽도록 하였다. 《비국민》이라하며 마구 매리었다.

이와 같은 일제의 책동은 우리 말과 글을 없애버림으로써 조선민족을 완전히 말살해버리려는데 그 간악한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때인 1936년 리국로선생은 김일성장군님께서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발표하시였다는 소식에 접하게 되었다.

이제 교형리들은 이들의 애국적지조를 꺾어버리려고 별의별 악독한 고문을 다들이었다. 특히 선생의 애국적지조를 꺾으려고 일제는 그의 손톱과 발톱을 모조리 뽑아내고 어깨뼈까지 부스러뜨리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하지만 그 어떤 고문으로도 조선독립의지와 민족어를 지키려는 선생의 굳센 지조를 꺾을수 없었다. 모친 고평골에 선생은 6년형을 선고받았다. 가혹한 고문으로 온몸이 퍼투성이 되었지만 선생을 비롯한 애국적지성인들은 험하게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전혀 흘리지 않았다.